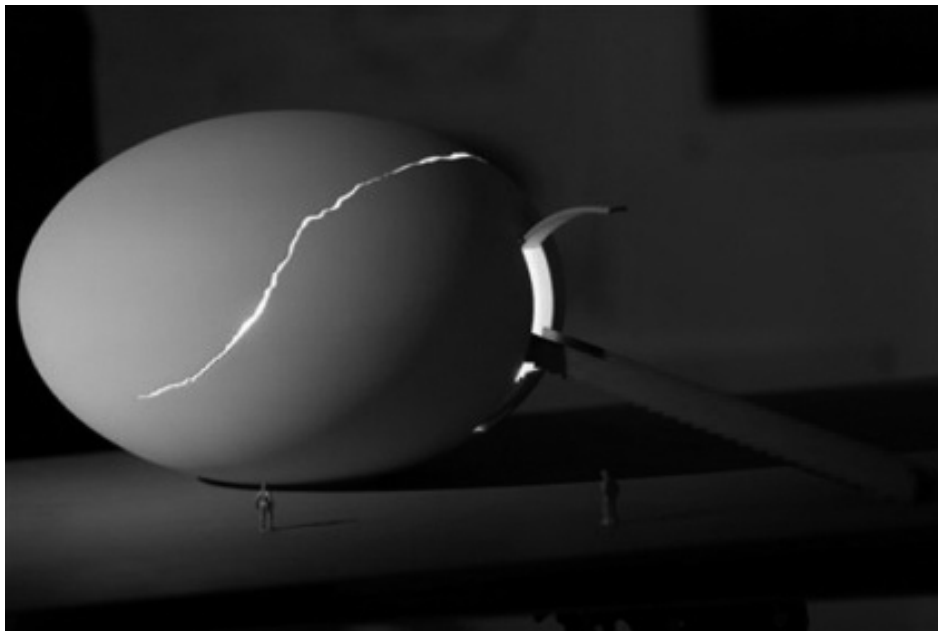


건축과 패션, 그리고 이노베이션 -밀란 디자인쇼

Milan, Italy, design show mixes innovation, fashion, architecture



'Broken Egg'라 불리는 탁상용 램프.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 Ingo Mauer 제작

지난 4월 12일 부터 6일동안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가구/디자인 쇼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열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는 갈수록 허물어져 가는 서로 다른 영역간의 경계, 공해와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시대적 고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명품 디자인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시장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해가 갈수록 규모를 더하고 있는 이 행사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탈리아의 가구 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처음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그 영역을 점차 넓혀 패션과 건축에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 허물기가 처음에는 한낱 시도에 불과하다고 인식 되었지만 이제는 점차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가구는 이제 그것들이 놓여질 위치와 장

소가 예측되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Altgamma Association에 제출된 Bain&Co.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전세계 명품가구의 매출은 약 3% 증가하여 185억 유로(약 2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체 명품시장의 성장세와 비교할 때 약 10%정도 뒤져 있는 수치로 아직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Phillipe Starck, Ingo Mauer 등 많은 유명 디자이너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쇼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Lighting

암실을 들어서면 입자 크기의 LED 조명들이 마치 손으로 잡힐듯 굴절되어 버리는 신비한 광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레인보우, 이것은 Tokyo/Milan 디자인 스튜디오 IXI 에서 Toshiba의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조명이다. 여기서 빛의 굴절을 만드는 물 입자의 역할은 크리스탈이, 태양광의 역할은 LED 전구가 담당한다. 이탈리아 말로 숨결이라는 뜻인 "Soffio"라고 명명된 이 설치물은 이번 전시회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크리스탈 제조사인 Baccarat은 이번쇼에서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크리스탈을 적용하여 램프와 상들리에, 불박이 등기구의 디자인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또한 브라질 출신의 형제 디자이너 Fernando와 Humberto는 등나무, 대나무 그리고 실크를 이용한 이국적인 형태의 램프를 선보였다. 또한 Phillipe Starck는 24개의 전구가 장식된 상들리에 시리즈를, Arik Levy는 4단의 결정체 패턴의 현대적 감각의 상들리에를 각각 준비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Bath

욕실을 더이상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욕실은 우리의 감성을 더욱 자극하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다. 일터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혹은 저녁 외출을 나가기 전에 들러 매무새를 다듬는 욕실보다 지친 마음의 치유를 위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욕실관련 부분을 명품시장의 새로운 시장으로 평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이 분야 시장규모는 28억 유로에 달했다.

이탈리아 회사인 Kartell은 이번 쇼에서 스위스 제조사인 Laufen, 그리고 디자이너 Ludovica, Loberto Palomba와 공동으로 욕실용품 컬렉션을 런칭했다. "욕실부분의 성장 가능성은 이미 몇년 전부터 관측 되었습니다." Kartell의 회장인 Claudio Luti의 말이다. "이제, 사람들은 완벽한 휴식조차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토탈리빙의 시대가 온거죠"

Palomba의 디자인 팀은 Laufen이 개발한 새로운 세라믹 소재, SaphirKeramic을 적용한 욕조, 세면도기, 욕실금구를 디자인 하였다. 욕조와 세면도기는 바닥에 고정되는 방식으로 깔끔한 외관을 보이며, 물넘침 방지구가 보이지 않게 디자인 되었다. 투명한 소재의 캐비닛과 짝을 맞춘 욕실 장식 등은 Kartell 특유의 느낌으로 선반, 스톨, 수전대 등에 적용되어 투명함과 다양한 인테리어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Sustainable Living

모든것은 자연을 닮아간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공해를 유



'Broken Egg'라 불리는 탁상용 램프.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 Ingo Mauer 제작

발하는 것이 자동차라는 상식은 이미 옛날 이야기다. 건축물은 인간이 생산하는 전체 에너지의 40%를 소비하며, 탄소가스 방출량의 25%를 차지한다. 공해를 유발하는 정도에서 이미 자동차를 앞질렀다.

Mario Cucinella는 친환경 건축을 중요함을 오래전부터 역설해 왔으며 이번에 타일 제조사인 Marazzi와 공동으로 대기오염과 관련한 컨셉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Pure Air'라는 이름이 붙여진 6미터 크기의 입방체는 외관을 덮은 옥각형 검은색 타일만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Cucinella는 공기정화와 습기조절 등의 효과를 지닌 이러한 재료의 사용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한마디로 '자연정화'의 원리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는, 자신의 건축철학이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Bologna 출신의 Alessadro Israelachvili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여러 가구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색다른 취향을 쫓는 관객이라면 한번 눈여겨 볼 만 하다

Crossover design

디자인, 패션 그리고 건축의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 간다.

이탈리아의 안경 제조사인 Safilo와 건축 디자이너 Michele De Lucci는 소나무 문양과 고대신화의 인물조각이 어우러진 eyewear를 만들었다. Safilo의 CEO인 Roberto Vedovotto는 자신들의 분야가 결코 디자인의 영역을 떠나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쇼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

본 내용은 Rapidcity Journal에 게재된 'Milan, Italy, design show mixes innovation, fashion, architecture' 의 일부를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